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2020. 5. 6.(수) 13:30~16:3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 ‘그린뉴딜’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을 통한 한국사회 대전환 모색

주 최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

발제 1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발제 2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 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토 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시민당)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2020. 5. 6.(수) 13:30~16:3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 ‘그린뉴딜’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을 통한 한국사회 대전환 모색

주 최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

발제 1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발제 2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 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토 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시민당)



목 차

인사말·축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

발제

발제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17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발제2 -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 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	39
-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패널토론 51

좌 장 :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토론자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시민당)



인사말·축사

인사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김 성 환

(서울 노원구 병,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한국형 뉴딜TF 단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한국형 뉴딜TF 단장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아직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의료진과 정부관계자 분들에게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장기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의 충격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축된 실물경제를 원상회복시키고, 새로운 경제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이후 그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기후위기가 닥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으로 궤멸적인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은 연방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GDP의 10%가 손실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지난해 ‘그린 딜(Green Deal)’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대응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시점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탈탄소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점이 겹치지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에 투자하는 ‘그린뉴딜’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에너지다소비업종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탄소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와 같은 미래차 산업,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산업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뉴딜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다른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금일 토론회는 ‘그린뉴딜’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왜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의 정책방향의 주류가 되어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토론회입니다. 특히 ‘한국형 뉴딜’과 ‘그린뉴딜’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그린뉴딜’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한국형 뉴딜’과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급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신 발제자들과 토론자들과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의 주요 패러다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6일
국회의원 김 성 환



국회의원 김 두 관

(경기 김포시 갑(現), 경남 양산시울(21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우수 환경 의원’에 선정되실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성환 국회의원님, 우원식 국회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고 전 지구적인 환경 보전과 평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빛나는 제안으로 훌륭한 토론을 만들어 주실 유종일 원장님, 홍종호 교수님, 이유진 박사님, 한병화 연구위원님, 장다울 정책전문위원님, 이소영·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멀리 국회까지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진행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New Deal)’의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내용으로 비대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이 손꼽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이 도시화, 집중화를 비롯해 넓게 보면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넘어 무한생산과 무한소비 체제 자체가 기후위기의 근원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경제·산업 체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불평등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린 뉴딜’이 새로운 정책의제로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조금씩 추진해 왔고, 비록 상원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올해 초 그린뉴딜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 의회는 지난해 6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나 동작구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이러한 사례를 토론회를 통해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그린 뉴딜’은 이제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차원에서 ‘한국판 뉴딜’로 반영하기 위한 오늘의 토론회는 정말 뜻깊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들을 지원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는 그린 뉴딜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6일
국회의원 김 두 관



국회의원 송영길

(인천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길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화 긴급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성환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소중한 의견을 주실 경제 및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분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에 맞서 싸우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는 화석연료에 기초한 인류문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유엔기후보고서에 따르면 13.87도였던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100년 만에 1.1도 상승한 14.97도가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에 기인한 가뭄, 폭우, 냉해 등으로 식량과 물 문제와 지구촌에 12억 명의 빈곤인구가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인류의 미래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전환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국난을 극복할 해결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려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는 대한민국 경제와 기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한국판 뉴딜’로 전환되고 융합된다면 위기를 극복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의정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소통·교류하고 국제적인 연대 활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를 도와 코로나 이후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준비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6일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우원식

(서울 노원구을,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 우원식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의료진 뒤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입니다. 코로나 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은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사태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1, 2차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금융지원 등 당장 생존위험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앞으로의 3차 추경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 재정투자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가 줄고, 자연환경이 복원되는 ‘코로나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정책이 더 힘을 받고, 전 세계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아 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코로나 19와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이전부터 미국 민주당과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대선 공약으로 삼으면서 미국사회에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럽연합도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유러피안 그린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의 타격이 훨씬 심각한 유럽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모든 투자는 ‘그린딜(Green Deal)’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추상적 환경 담론이 아닙니다. 그저 온실가스만 감축하자는 구호도 아닙니다.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EU의

그린딜 계획이 2021년 시행되면 당장 한국은 탄소 국경세를 물게 됩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산업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에너지전환을 더디게 진행할 경우 코로나 19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 ‘한국판 뉴딜’의 근간은 그린뉴딜이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유효한 전략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로 바뀌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100%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14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녹색부양으로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폭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차로 전환하면서 뒤따르는 자동차산업의 고용문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 발전 산업의 고용문제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가야합니다.

그린 뉴딜은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위한 ‘그린협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중요한 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6일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홍영표
(인천 부평구 을, 전 원내대표)

축사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성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모든 관계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위기입니다. 경제·사회·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 모범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난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해, 고용·디지털·사회간접자본·사회안전망 정책을 아우르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경제의 기존 구조와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며, 노동과 사회 운영 매커니즘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경제·사회 시스템 개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전략 중 하나는 ‘그린뉴딜’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2050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 혁신과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판 뉴딜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이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6일
국회의원 **홍영표**

발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의 필요성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유종일

2020. 5. 6

Copyright © 2020 by KDI School. All Rights Reserved.



CHAPTER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1.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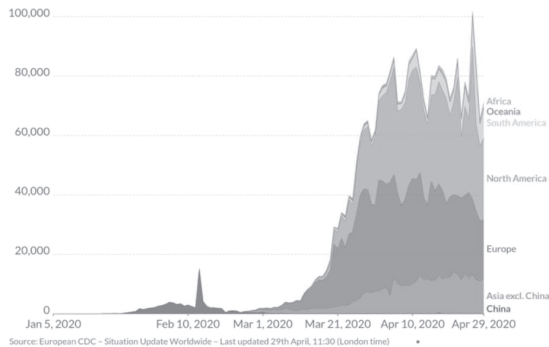
A. 코로나19 대유행의 세계적 확산 추이

» 4.30 기준 190개국, 확진자 320만, 사망자 23만 초과

» 미국, 영국 등 제외한 선진국은 대부분 고점 넘었으나 개도국은 대다수 증가세

Daily confirmed COVID-19 case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lower than the number of total cases. The main reason for this is limited testing.



Source: European CDC - Situation Update Worldwide - Last updated 29th April, 11:30 (London time)



3

1.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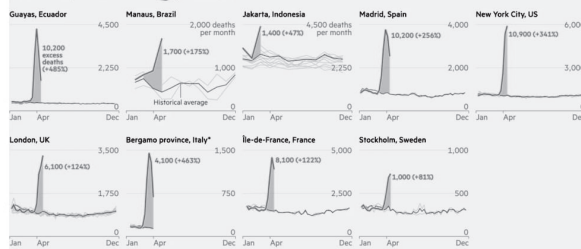
B. 코로나19 공식 통계와 실제 피해

» 불충분한 진단검사 때문에 실제 감염자수는 확진자수의 최소 5~10배에 이르고, 실제 사망자수도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

» 중국의 통계에 대한 의문, 미국과 유럽도 상당한 under-reporting, 개도국은 훨씬 심각 (에콰도르 15배?)

Mortality rates have soared in urban areas worldwide, with overall excess deaths much higher than reported Covid-19 counts

Number of deaths per week from all causes, 2020 vs recent years: Δ Cheng



*Historical figures are for a subset of neighbourhoods where data is available. Source: FT analysis of national mortality data. Figures for Jakarta refer to burials. Data updated April 29. FT graphic: John Rasmussen / @johnrasmussen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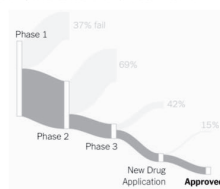
1.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C.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

- » 인구의 60~70%가 감염되어 집단면역 형성 혹은 백신 대량생산만이 종식 방법
 - 억제 조치는 집단면역 형성 지연, 조기완화하면 제2의 확산 불가피
- » 백신 개발에만 최소 1.5년~3년 소요,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1년 후 동경올림픽?)
- » '포스트 코로나'란 방역, 치료제 개발, 의료시스템에 의존 '바이러스와 같이 살기'
 -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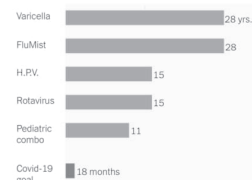
Less than 10 percent of drug trials are ultimately approved
Probability of success at each phase of research



Note: Between 2006 and 2015. Source: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Biomedtracker, Amplion.

Years and years, at minimum

The vaccine development process has typically taken a decade or longer.



Note: Rotavirus and HPV vaccines include time from filing of the first investigational new drug to approval. Source: "Plotkin's Vaccines" (7th edition)

1.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D. 성공적 K-방역으로 세계적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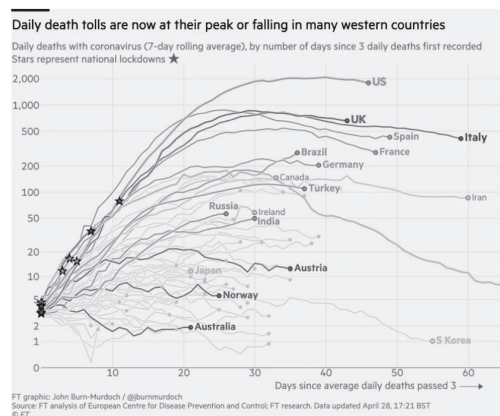
- » 강력한 봉쇄 없이 대규모 검사 - 신속 추적 - 격리 및 치료에 의해 억제 성공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 By Google>



Italy (3.29)

S. Korea(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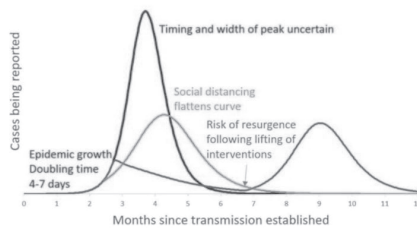
FT graphic: John Burn-Murdoch / @burnmurdoch
Source: FT analysis of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FT research. Data updated April 28, 17:21 BST © FT

1.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E. 신중한 출구전략의 필요성

- » 단기적으로 생명과 경제 사이의 상충관계,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경제에도 도움
 - 선부른 완화는 2차 확산 초래 (예: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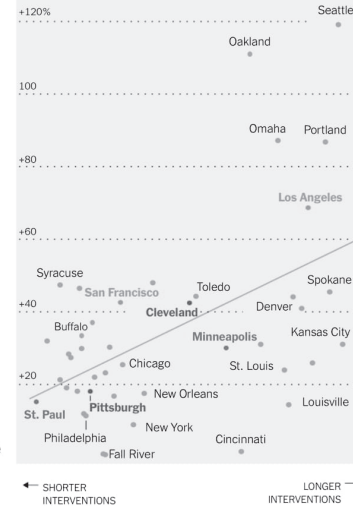
- » 성공적 출구는 과거 회귀가 아닌 '지속가능한 방역' New Normal



"Pandemics Depress the Econom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Do Not: Evidence from the 1918 Flu", Sergio Correia, Stephan Luck, Emil Verner, 1 April, 2020

Cities That Had More Aggressive Interventions Tended to Have Higher Employment Growth

GROWTH IN MFG. EMPLOYMENT 1914 TO 19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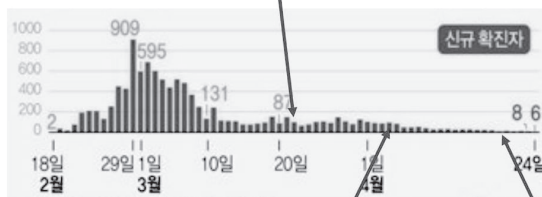
KDI SCHOOL

1.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F. 한국의 초반 출구전략 성공

- » 신중한 단계적 접근 지금까지 대성공
 - 총선거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무
 - 세계가 주목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개막
 - 4.29 국내 확진자 발생 0명

(3.22)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4)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4.19) 5.5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8

KDI SCHOOL

1.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G. 출구전략 관련 우려 사항들

- » 방역 당국의 신중한 경고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충돌
- » 확진자수 감소로 긴장이 풀린 국민의 황금연휴 대이동의 결과는?
- » 취약계층, 취약시설, 의료체계 준비 등 '성공의 함정' 가능성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라톤 초반 선두가 우승하기 어렵다.”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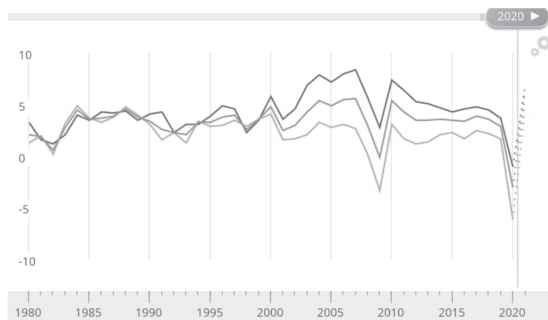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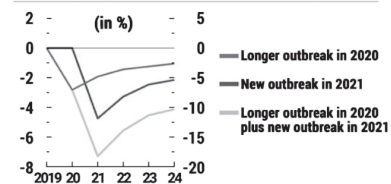
A. 대공황 이래 최악의 코로나19 경제위기

- ▶ IMF,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예상 (작년 10월 3.4% → 금년 4월 -3.0%)
- ▶ 방역과 경제정책 실패, 국제공조 붕괴 →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020. 4. 15.>

Alternative Scenarios: World Real GD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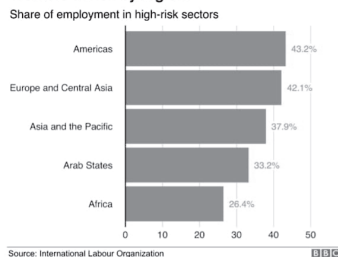
KDI SCHOOL

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B. 인도주의적 대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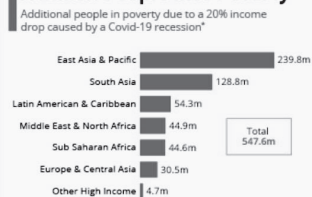
- ▶ ILO, 2억명 가까운 실업자 발생
- ▶ Oxfam, 5억명 빈곤 나락
- ▶ WFP, 2.7억명 기아(극심한 배고픔)

Workers at risk by region



Sourc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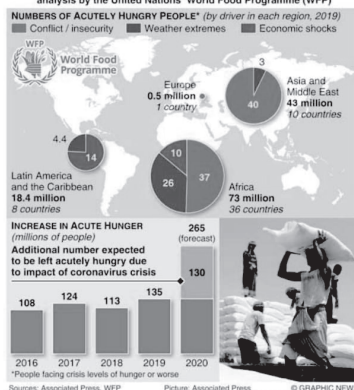
Covid-19 Could Push Half A Billion People Into Poverty



* Poverty level - people earning below \$5.50 per day
Source: Oxfam

Coronavirus crisis could double world hunger

The number of people facing acute food insecurity could double by the end of 2020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ccording to analysis by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



Sources: Associated Press, WFP

Picture: Associated Press

© GRAPHIC NEW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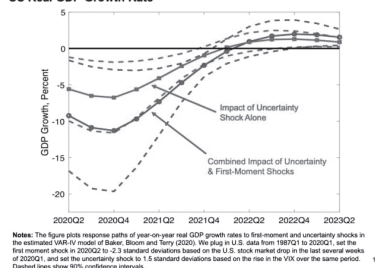
KDI SCHOOL

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C. V자형 회복이 어려운 이유

- » COVID-19 대유행 장기화 시, 정책 대응 한계 (특히 개도국)
- » 감염 확산 진정 후에도 거대한 불확실성과 국내외 공급망 문제 지속
 - 중국 사례 (1/4분기 -6.8%성장, 봉쇄 해제 이후 회복세 완만)
- » 국제공조 결핍으로 교역 위축, 신흥국 위기, 개도국 빈곤 확산 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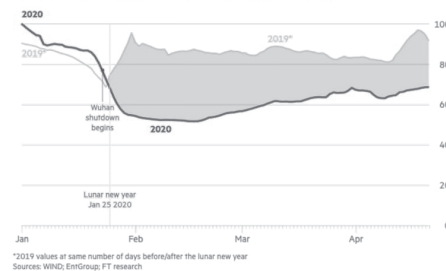
Figure 5: Estimated Impact of COVID-19 Shocks on Year-over-Year US Real GDP Growth Rate



Scott R. Baker Nicholas Bloom Steven J. Davis Stephen J. Terry
COVID-INDUCED ECONOMIC UNCERTAINTY, NBER Working Paper 26983

Covid 19's impact on the Chinese economy

FT China Economic Activity Index (Jan 1 2020 = 100), last updated Apr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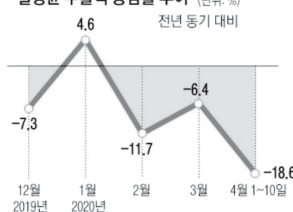
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D. 코로나19와 한국경제의 위기

- » 강력한 봉쇄 없이 방역 성공, 경제 충격 제한 (IMF, 선진국 최고인 -1.2% 성장 전망)
 - 1/4분기 -1.4% (1.3%) 성장, 높은 해외 의존도 문제 (4.1~20 수출액 -26.9% 성장)
 -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부실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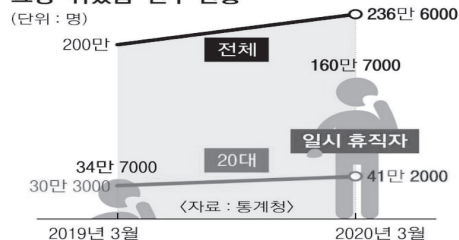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 추이 (단위: %)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누적



그냥 '쉬었음' 인구 현황



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E. 경제위기 긴급 대응전략

» 경기회복 단계 진입 이전에는 방역지원, 금융안정, 재난구제에 집중

-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로 악순환의 증폭 방지 (≠ 경기부양)

» 방역지원 정책

- 방역의료체계 보강, 무료 검사, 격리자 지원, 방역관련 피해 (개인, 병원, 업소) 지원 등
-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화, 취약 중소기업체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방역인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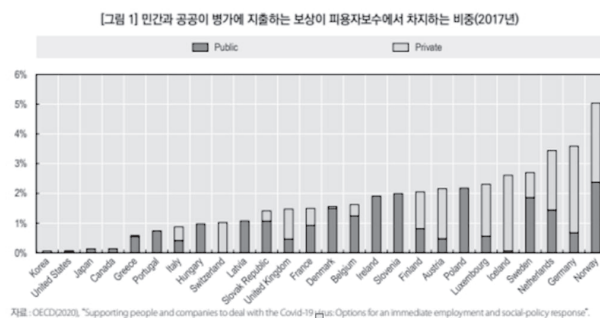
» 금융안정화 정책

» 취약-피해 계층 생계지원

- 원칙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실업부조 도입 필요
- 긴급재난지원금 실효성 제고 필요 (독일 사례)

» 생산력 보존

- 고용유지와 흑자도산 방지



15

KDI SCHOOL

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F. 부위정경(扶危定傾)의 경제회복

(과거회귀가 아닌 과거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위기극복)

» 개인과 국가의 우선순위 재정립

- 소득·소비·성장보다 안전·건강·행복 우선 (위라벨, 규제정책, 공공투자 등)
- 빈틈 없는 방역-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 기본이 튼튼하여 회복탄력성 높은 경제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과 금융건전성
-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기반
- 기업지배구조와 공공거버넌스

» 미래지향적 구조조정

- 사양산업, 좀비기업 지원 지양
- 언택트 경제 (특히 데이터 경제), 바이오헬스,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기회 적극 대응



16

KDI SCHOOL

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G.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경제재건과 '전환적 뉴딜'

- » 코로나19 이전에 한국경제는 지속가능성 위기 직면, 경로의 근본적 전환 필요
- » 휴먼뉴딜: 안전과 행복, 건강과 역량 등 사람중심 경제 구축
- »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한 인재육성과 인프라투자,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디지털 전환 위한 제도 혁신
- » 그린 뉴딜: 휴먼, 디지털 뉴딜과 맞물리면서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경제, 녹색기술 및 고용창출 추구

전환적 뉴딜의 구성요소와 연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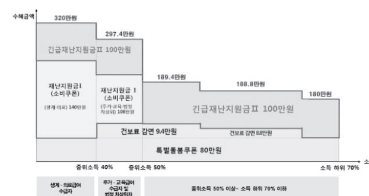
17

KDI SCHOOL

2.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대응전략

H.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평가

- » 4월까지 발표된 정부대책 241.8조원 (11.7+9.1+100+36+85)
 - 재정지원은 30.8조원, 대부분은 금융지원
- » 긴급한 방역지원 잘했으나, 제도적 보완 필요
- » 금융시장 안정 잘했으나, 재난 구제는 미흡
 - 재정건전성 우려로 재정투입 소극적
 - 생계-고용-기업지원 전달체계 부실로 집행 지연
- » 회복탄력성과 미래지향적 구조조정 미흡
 - 방역-고용-사회안전망의 자동안정화 기능에 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경기활성화만 서두름
 - 재정건전성과 조세개혁 및 재분배에 관한 사회적 합의 구축 필요
 - 구조적 적자 기업과 사양산업의 지원 문제
- » '한국형 뉴딜'은 '전환적 뉴딜'이 될 것인가?



18

KDI SCHOOL

CHAPTER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A. 대형 역병의 역사적 교훈

- » 흔히 정치·경제·사회·국제질서 격변 초래
- » 개방·협력을 향한 진취적 변화 가능성과 폐쇄·배타주의를 향한 퇴행적 변화 가능성 공존 (미래지향적 위기 대응 실천의 중요성!)
 - 흑사병 이후 서유럽의 농노제 해체와 동유럽의 농노제 강화



BW vs. MAGA



BC vs. AC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B. 세계화의 미래-성곽시대의 도래?

성곽시대의 도래?

- » 생존위기가 부추기는 자국우선주의 (국경 폐쇄, 수출 규제 등)
- » 글로벌가치사슬의 취약성 부각 (신뢰가 효율보다 중요)
- » 농업, 제조업 베이스 중요성 재확인

HYPER GLOBALIZATION

Exploring the impact of a global world on how we will live and work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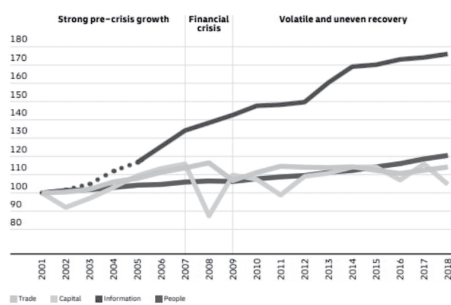
21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B. 세계화의 미래-새로운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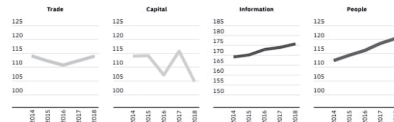
- » 양상은 변해도 세계화는 지속 (궁극적 역사발전 트렌드)
- » 물건과 돈보다는 지식, 정보와 문화 흐름 중심
- » 금융, TNC 주도에서 글로벌공공재 (방역, 기후변화, 지식공유, SDG) 중심

FIGURE 6: FOUR PILLARS OF GLOBAL CONNECTEDNESS, 200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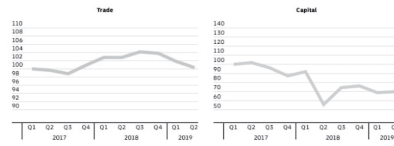
The trade and capital pillars of the index have been volatile, rising in the pre-crisis era before crashing during the crisis years, and fluctuating below their prior peaks in the post-crisis period. By contrast, the information and people pillars have risen in every year since 2001. Note: Information pillar does not include internet traffic prior to 2005.

FIGURE 2: FOUR PILLARS OF GLOBAL CONNECTEDNESS: TRADE, CAPITAL, INFORMATION, AND PEOPLE, 2014-2018



The decline in global connectedness in 2018 was driven by the capital pillar. The trade, information, and people pillars all saw moderate growth in 2018.

FIGURE 3: QUARTERLY TRADE AND CAPITAL DEPTH TRENDS, 201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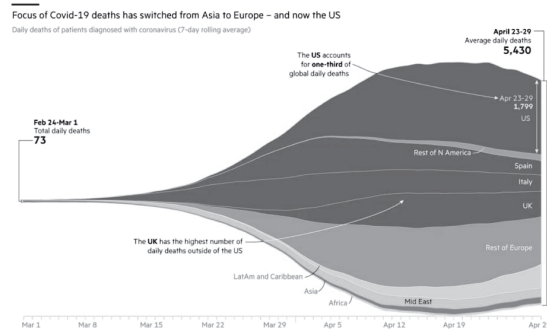
Preliminary analysis indicates that trade intensity declined in the first half of 2019, while a halting trend in capital flows moderated.

22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C. 신자유주의의 종언-공공성의 재발견

- » 시장만능주의와 작은정부론의 무능과 실패 확인
- »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부각
- » 부자 나라-부자 도시 중심 피해 확산과 불평등 문제 부각



23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C. 신자유주의의 종언-경제민주화

- » 우익포퐁리즘 (소비니즘, 인종주의,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
- »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에 공공성과 공정성 접목하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조항 개헌에 관한 조사 결과

※〈한겨레〉·한국리서치 전국 성인 1000명 유선·휴대전화 임의접기(RDD) 방식 조사(7월8~9일),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7.9%

• 균형성장, 적절한 소득분배 등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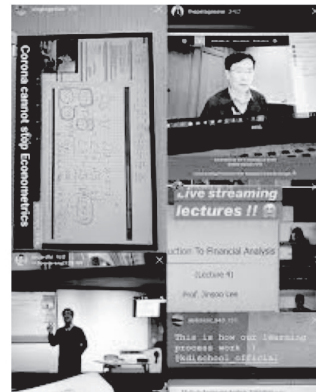


24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D. 디지털 전환 - 가속화와 전면화

- » 비대면 서비스 급증, 데이터 경제 부상, 산업지능화
- » 디지털 전환은 효율 향상 + 환경영향 감소



25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D. 디지털 전환 - 포용적 전환의 도전

- » Digital Unemployment
- » Digital Divide
- » Big Br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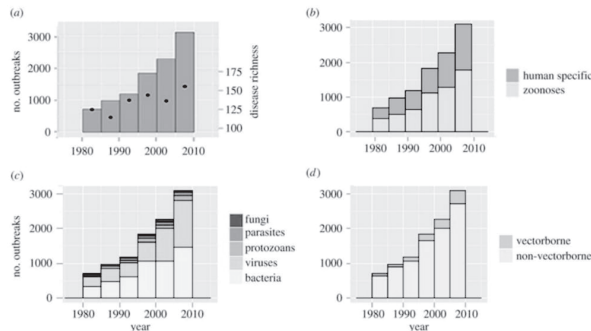


26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E. 녹색 전환 – 코로나19의 경고

- » 환경파괴,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관계
- » 코로나19가 보여준 환경 회복의 가능성



The global number of human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and richness of causal diseases, from 1980 to 2010. Outbreak records are plotted with respect to (a) total global outbreaks (left axis, bars) and total number of diseases causing outbreaks in each year (right axis, dots), (b) host type, (c) pathogen taxonomy, and (d) transmission mode. *The Royal Society*



27

KDI SCHOOL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E. 녹색 전환 - 기후변화 대응 본격화

- » 공공재를 위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중요성 인식 제고
- » 미국의 '그린 뉴딜', 유럽의 '그린 딜'과 세계 여론의 변화



28

KDI SCHOOL

3.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

F. 뉴욕의 몰락과 현대문명의 미래

» 방역과 경제회복의 우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 오리엔탈리즘과 미-중 패권쟁투의 향방
- 새로운 세계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 민주주의, 개인주의, 과학주의, 물질만능주의의 문제



CHAPTER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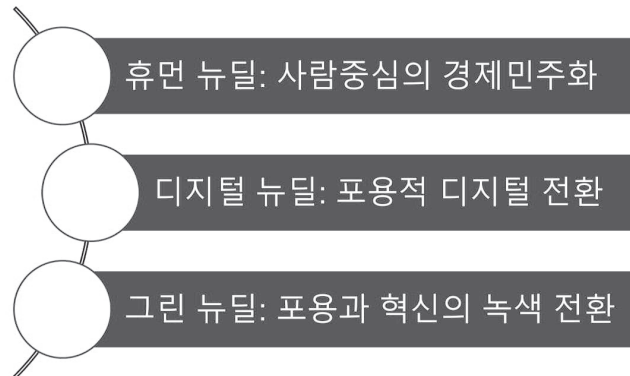
한국형 그린 뉴딜



4. 한국형 그린 뉴딜

A.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출구

»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세계(화)의 화두는 ‘전환적 뉴딜’



» 방역 성공 위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이루어내야 새로운 세계 주역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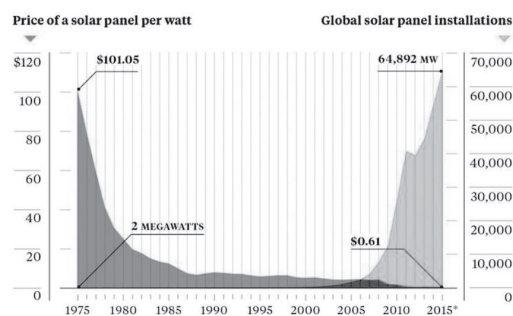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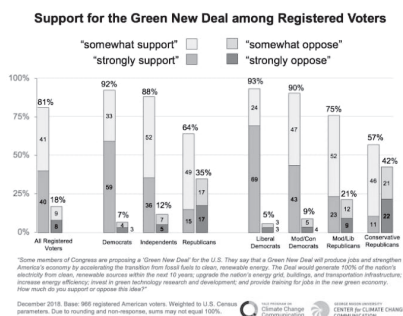


4. 한국형 그린 뉴딜

B.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의 가능성

» 정치적, 기술적 가능성과 코로나19의 경고

» European Commission's Green Deal chief, Frans Timmermans, “Every euro we invest must flow into a new (green and digital) economy rather than old structures. The European Green Deal is a growth strategy and a winning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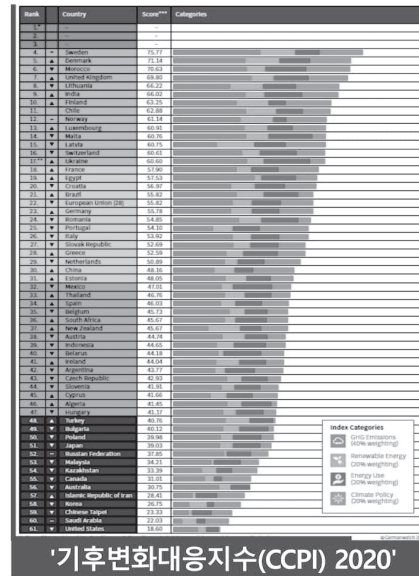
32



4. 한국형 그린 뉴딜

C. 한국형 그린 뉴딜의 필요성

- » '기후약당국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세계 표준이 될 수 없음
- » 소극적인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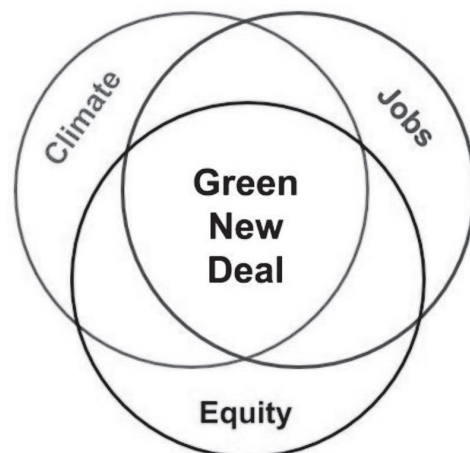


33

4. 한국형 그린 뉴딜

D. 한국형 그린 뉴딜은 '전환적 뉴딜'

- » 그린 뉴딜은 원래 '환경과 지속가능성' 외에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분배와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
 - 삼중의 목표 달성 위해서는 휴먼 뉴딜과 디지털 뉴딜 함께 해야
 - 그린 뉴딜은 사람중심 가치 위에서 성립하고, 디지털 기술이 중심적 역할
 -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갖추어진 유럽의 경우에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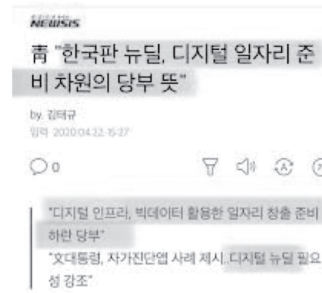


34

4. 한국형 그린 뉴딜

E. '전환적 뉴딜'과 '한국형 뉴딜'

- » 경로 전환의 계기로서 코로나19 위기
 - 전환적 뉴딜은 발전경로 전환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과 제도개혁 중심의 경기회복 정책
 - 코로나19 위기를 '경로의존성' 돌파의 기회로 삼아야
- » 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 '한국형 뉴딜' 발표
 - 경로 전환보다 일자리와 경기부양만 강조
 - 디지털 일자리 강조



35

4. 한국형 그린 뉴딜

F. 그린 뉴딜 관점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

- » 미래지향적 구조조정 비전의 부실
 - 00중공업 사례, 기간산업 지원 계획
- » 소비활성화 과도한 강조
 - 방역과 상충: 최근 감기, 폐렴 환자 급감
 - '생활 속 거리두기'와 미래 불확실성으로 소비수요 확대 중심 경기부양에 한계
 - 덜 쓰고 깨끗한 공기 누리는 행복, 다시 버려야 하나?
- » 공공투자 중심 경기부양이 바람직함
 - '한국형 뉴딜' 플랜 구체화 과정에서 전환적-그린 뉴딜 중심으로



36

4. 한국형 그린 뉴딜

G.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가능성

- » 포용성, 개방성, 혁신성에 기초한 선진적 방역과 휴먼, 디지털, 그린 전환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국제 협력체제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
- » 마라톤 초반의 리드를 지키려면 지금부터 '한국형 그린 뉴딜' 추진해야!!



37

KDI SCHOOL
Korea Institute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DI SCHOOL
Korea Institute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Q&A



Copyright © 2019 by KDI School. All Rights Reserved.

발제 2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2020년 5월 6일(수)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홍 종 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사)에너지전환포럼



COVID-19의 충격과 추가경정예산

- 1차 추경(20.3.18):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 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감염지역 지원
 - 11조 7,000억 원(국채발행 : 10조 3,000억 원)
- 2차 추경(20.04.30):
 - 100% 국민재난지원금
 - 12조 2,000억 원(국채발행: 3조 4,000억 원)
- 3차 추경?

COVID-19 이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관리재정 수지(조원)	△10.6	△42.3	△54.4	△71.5	△81.8	△85.6	△90.2
GDP 대비 (%)	△0.6	△2.2	△2.8	△3.5	△3.9	△3.9	△3.9
국가채무 (조원)	680.5	731.5	728.8	805.2	887.6	970.6	1,061.3
GDP 대비 (%)	35.9	37.2	38.1	39.8	42.1	44.2	46.4

자료: 기획재정부 (2019)

COVID-19 이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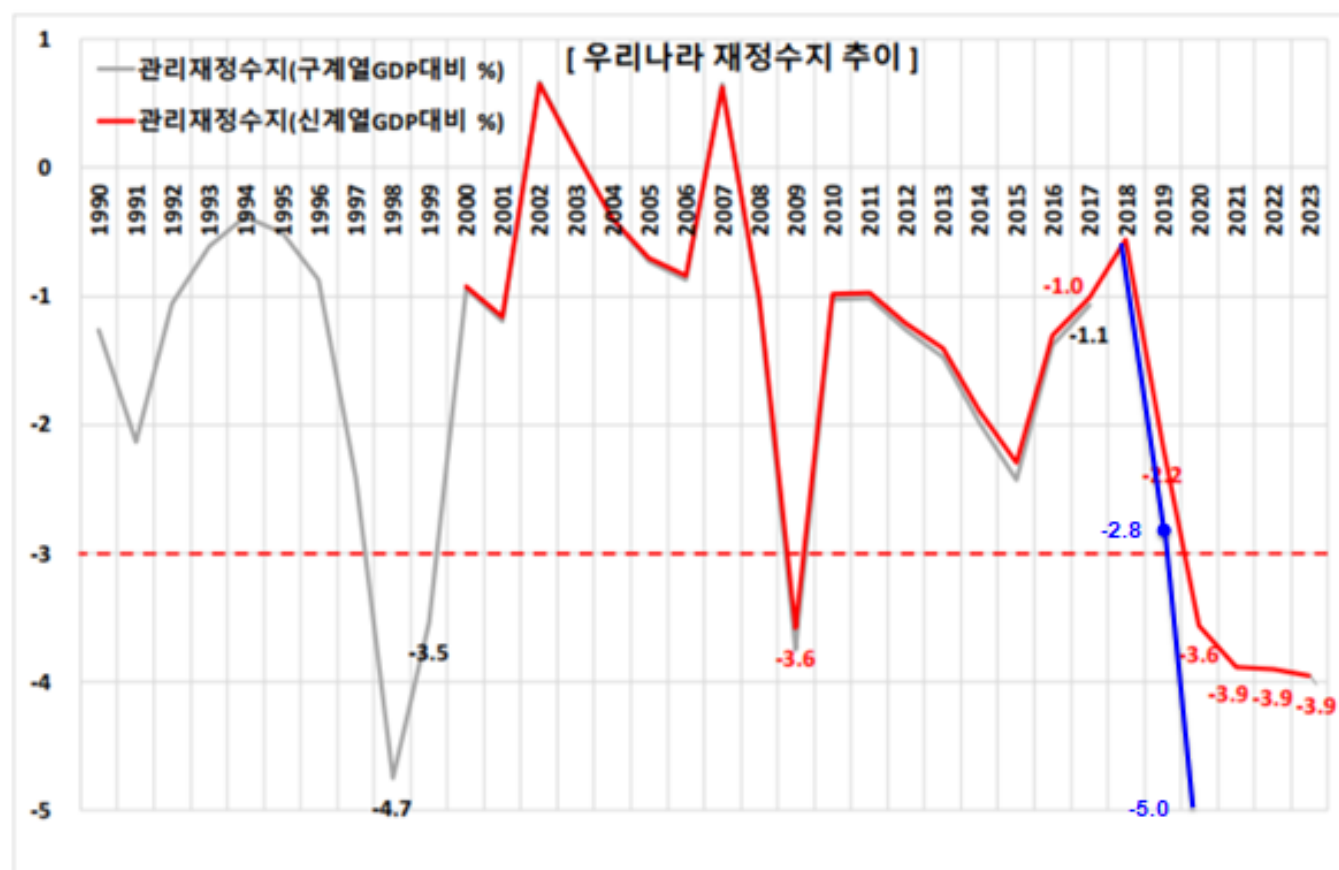
- 1, 2차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과 경제성장을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
- 경기부양(기간산업 및 고용 유지, 성장 신산업 지원,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한 3차 추경 논의 중
 - 역대 최대 규모 추경: 28조 4천억 원(2009년, 국채발행: 21조5천억 원)
- 시산을 위한 가정
 - 실질성장률: 0%, -0.5%(Moody's), -1.2%(IMF)
 - GDP deflator: 100
 - 세수의 GDP 탄력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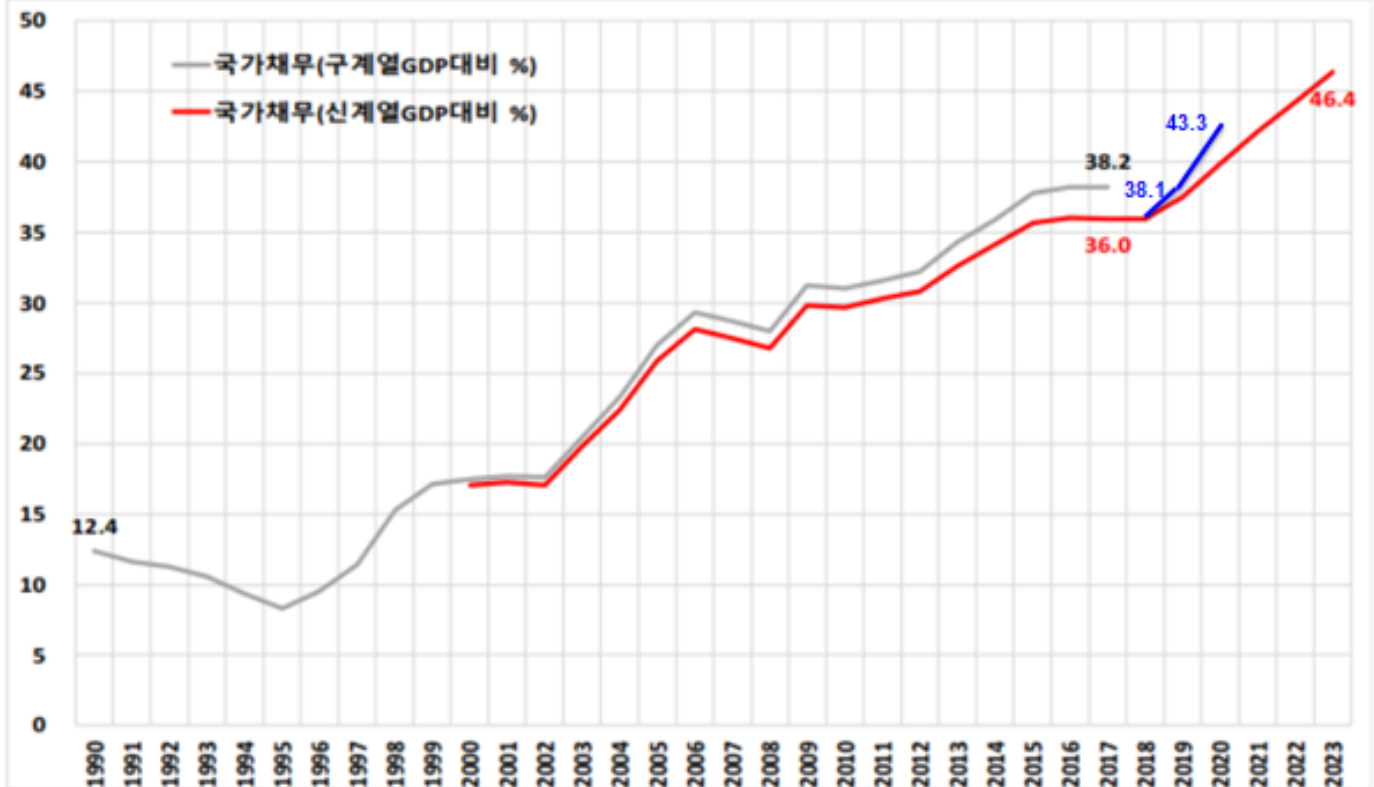
2020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2020년 (1, 2차 추경)	2020년 (30조 원 규모 3차 추경)
관리재정수지(조 원) (GDP 대비, %)	89.4 (4.7 ~ 4.8 ~ 5.0)	119.4 (6.24 ~ 6.27 ~ 6.31)
국가채무(조 원) (GDP 대비, %)	819 (42.8 ~ 43.0 ~ 43.3)	849 (44.4 ~ 44.6 ~ 44.9)

* 2019년 GDP: 1,914.0조 원



자료: 박형수(2019) 수정 추가



자료: 박형수(2019) 수정 추가

COVID-19 이전 재정정책 논쟁

확장 재정정책론	재정 건전성론
포용적 복지사회 기반구축(저출산·고령화 및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을 위한 확장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의 경직성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전통적인 SOC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부족한 여건 하에서 내수 진작과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세수 확보를 위한 의지나 노력 없이 지출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
성장잠재력 하락 고착화 이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당분간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2020년 이후 매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재정운용 편성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지속될 것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지출 규모가 작고,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양호하며, 상대적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	경기하락에 따라 재정수입은 둔화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과 국가채무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정부 공간을 튼튼히 하는 재정건전성이야말로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COVID-19 이전 재정정책 종합평가

- 국내외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거시적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며 제대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높은 국가채무 증가율은 향후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증세 등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 미시적 관점에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COVID-19 이후 세계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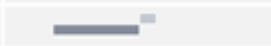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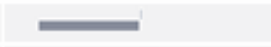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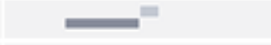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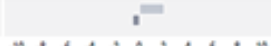
Table 1.1. Overview of the World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Percent change, unless noted otherwise)

	2019	Projections		Difference from January 2020 WEO Update ¹		Difference from October 2019 WEO ¹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World Output	2.9	-3.0	5.8	-6.3	2.4	-6.4	2.2
Advanced Economies	1.7	-6.1	4.5	-7.7	2.9	-7.8	2.9
United States	2.3	-5.9	4.7	-7.9	3.0	-8.0	3.0
Euro Area	1.2	-7.5	4.7	-8.8	3.3	-8.9	3.3
Germany	0.6	-7.0	5.2	-8.1	3.8	-8.2	3.8
France	1.3	-7.2	4.5	-8.5	3.2	-8.5	3.2
Italy	0.3	-9.1	4.8	-9.6	4.1	-9.6	4.0
Spain	2.0	-8.0	4.3	-9.6	2.7	-9.8	2.6
Japan	0.7	-5.2	3.0	-5.9	2.5	-5.7	2.5
United Kingdom	1.4	-6.5	4.0	-7.9	2.5	-7.9	2.5
Canada	1.6	-6.2	4.2	-8.0	2.4	-8.0	2.4
Other Advanced Economies ²	1.7	-4.6	4.5	-6.5	2.1	-6.6	2.2

미국 1/4분기 성장률 (20.4.29): -4.8%

자료: IMF(20.4.)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for the G-20 countries, 2020-21

Economies	Real GDP Growth				GDP loss compared to pre-coronavirus baseline	
	19		20F	21F	20F	21F
G-20	1.7		-5.8	4.2		
Advanced	1.7		-5.8	4.2		
US	2.3		-5.7	4.5	-7.3%	-4.9%
Euro area	1.2		-6.5	4.7	-7.6%	-4.6%
Japan	0.7		-6.5	2.7	-6.8%	-4.9%
Germany	0.6		-5.5	4.8	-6.4%	-3.2%
UK	1.4		-7.0	4.7	-7.9%	-4.5%
France	1.3		-6.3	4.5	-7.6%	-4.8%
Italy	0.3		-8.2	4.9	-8.7%	-4.9%
Canada	1.6		-6.1	4.2	-7.6%	-5.3%
Australia	1.8		-4.9	3.7	-7.0%	-5.9%
South Korea	2.0		-0.5	2.7	-2.5%	-2.3%

출처: Moody's (20.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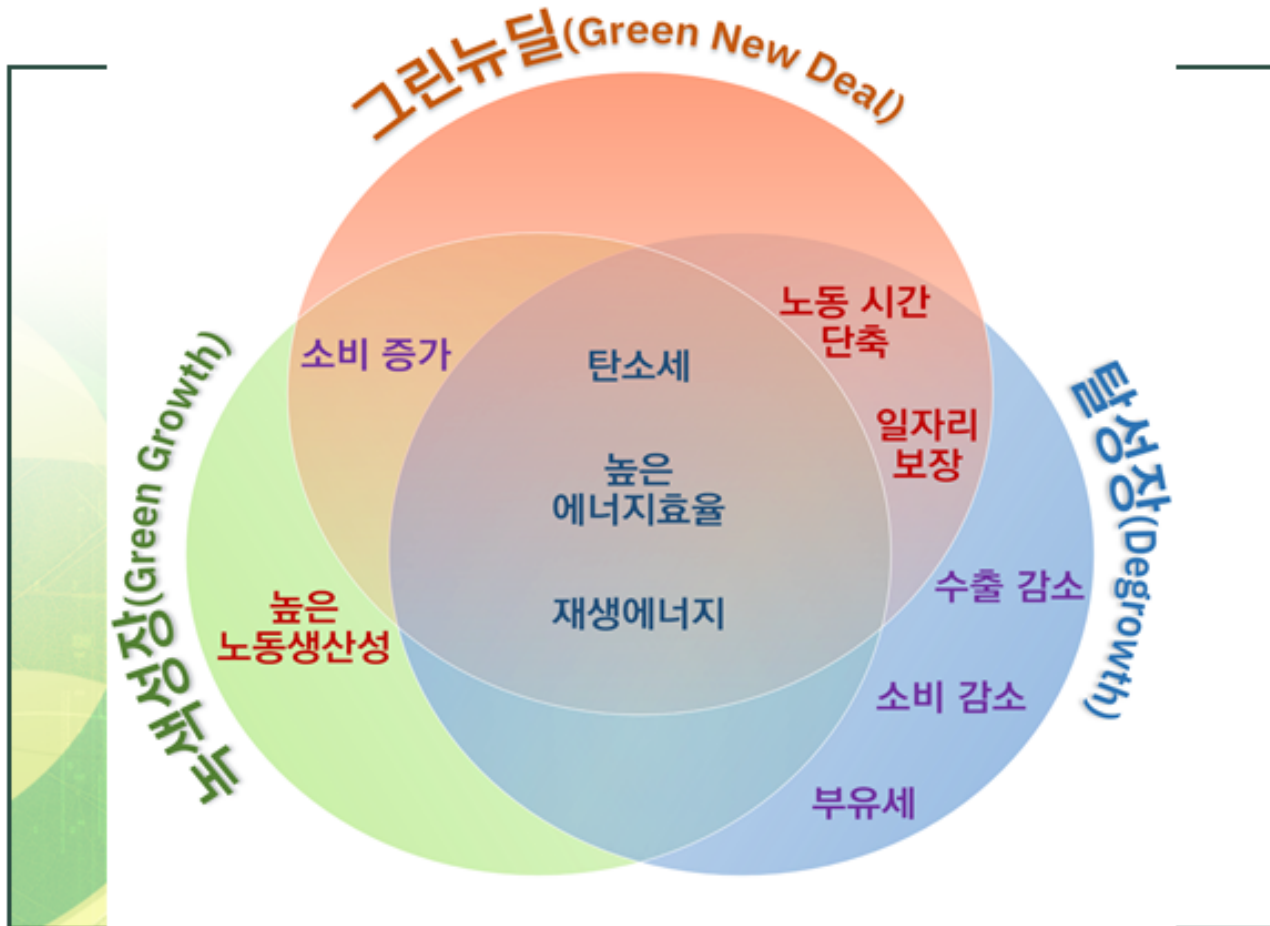
3차 추경 및 2021년 재정 방향

-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 기업 회생 → 일자리 창출 → 소득 창출 → 세수 증대 → 재정건전성 회복
- 전통 SOC 투자를 벗어난 미래형, 융합형 신산업 중시
- 일자리 및 소득 창출형 산업 중시
- 유럽과 미국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전략 반영
 - ...need to build a resilient, green and digital Europe. (EU 집행위원회 의장 폰테어라이엔, 20.04.20)



왜 녹색부양과 에너지뉴딜인가?

- 공공성, 경기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
 - 디지털 뉴딜, 바이오 뉴딜, 에너지 뉴딜 비교
 -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기후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 전략
- 에너지는 혁신의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 디지털 및 바이오와의 융합
- 경제활동과 화석연료 사용 감소가 공기와 물을 정화하는 세계적 현상 → 코로나의 역설 (미세먼지 감소)
 - 성장과 일자리, 삶의 질과 환경 동시 회복



O'Neill, D. W. (2020). Beyond green growth. *Nature Sustainability*, 3, 260–261.



에너지뉴딜을 통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이유

에너지 안보

- 에너지 소비 세계 9위
- 에너지수입의존도 95%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OECD 꼴찌
- 미세먼지 농도 OECD 1위

신 성장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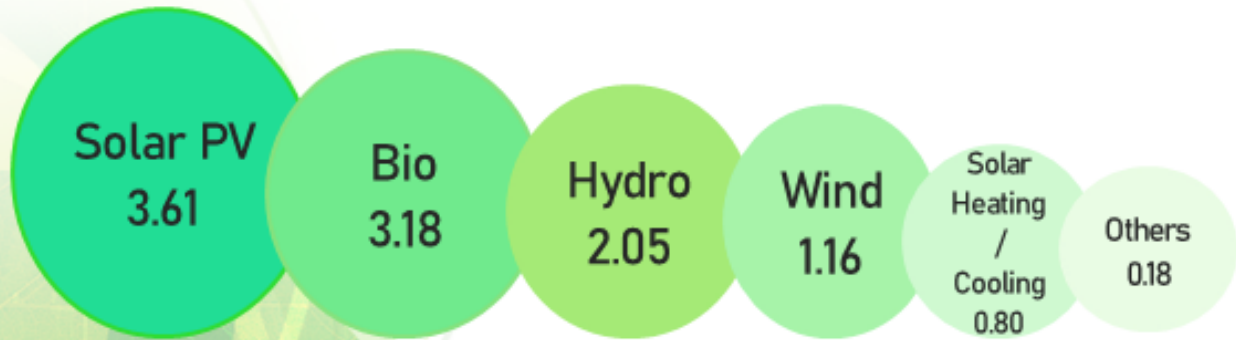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2% 대 수준으로 하락
-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혁신

온실가스 감축

- 연료 연소 CO2 배출 세계 7위
- 2030 NDC: BAU 대비 37% 감축



에너지전환의 일자리 효과



In 2018, 11 million are employed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worldwide (IRENA, 2019)



재생에너지 부문 고용과 발전용량

	한국	세계	비율 (%)
고용(명)	13,339	10,980,000	0.12
재생에너지 발전용량(MW)	13,880	2,356,350	0.59

출처: IRENA, 2019; ILO, 2019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시나리오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BAU (2016)	9,313	10,667	13,246	16,743	19,082	21,748	24,143
MTS	89,216	123,179	154,363	180,728	209,772	239,247	269,027
ATS	63,334	89,797	114,070	132,106	151,987	171,561	190,611
VTS	177,076	230,232	282,602	333,751	389,064	444,672	503,274

출처: 홍종호 등(2019)

 * 2017년 기준 원자력산업 및 자동차산업 고용규모:
37,261명 및 490,065명

에너지뉴딜 재정투자 사업 (예시)

태양광 프로젝트: Solar Farming을 통한 안정적 농민소득 창출

 풍력 프로젝트: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을 통한 주민 및 지자체
소득 창출

디지털 기반 계통연계

그린 모빌리티

바이오경제: 바이오화학, 바이오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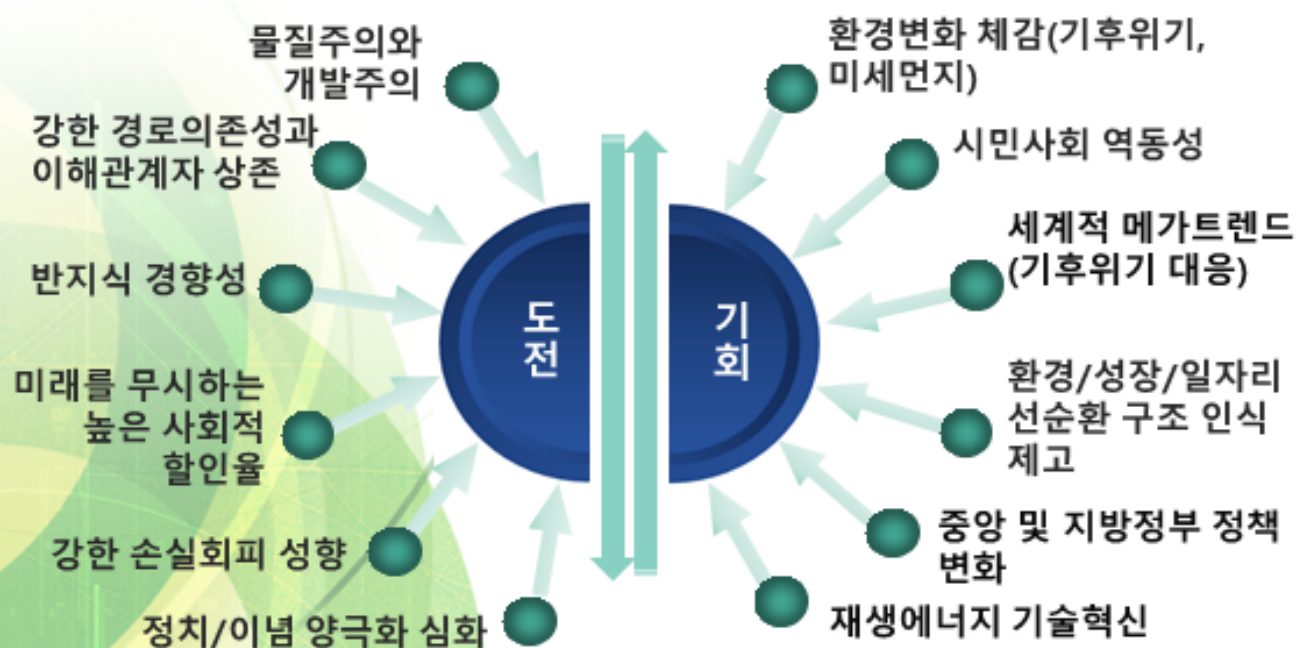
상하수도 물 인프라 재투자

스마트 시티 + 스마트 그리드 + 스마트 미터링

에너지전환 정책에 내재한 가치의 충돌

화석연료와 집중형 발전 공급 중심 vs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발전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과 기회



토론

좌 장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토 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

이소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양원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시민당)



MEMO

[illegible]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